

최민정, 대한민국 12년만의 3관왕 기대

오늘 여자 쇼트트랙 1000m 우승후보...세계랭킹도 1위
올림픽 데뷔전 불구 이미 금메달 2개 획득...레전드 예약



20일 오후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 금메달을 딴 대한민국 대표팀 최민정이 결승선을 통과하며 기뻐하고 있다.

정교한 팀워크를 뽐내며 스피드 스케이팅의 불협화음에 지친 마음을 달래준 여자 쇼트트랙이 개인 종목인 1000m에서 다시 한 번 금메달에 나선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의 마지막 종목이 될 1000m는 22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펼쳐진다. 우승후보 0순위는 최민정이다. 1000m는 500m의 스피드와 1500m의 레이스 운영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

는 종목이다. 지구력과 순발력 모두 최정상급인 최민정의 금빛 질주가 유력시 되는 이유다. 실력을 가늠할 객관적인 지표인 세계랭킹 역시 1위다.

이미 금메달 2개를 목에 걸며 더할 나위 없는 올림픽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최민정이 '전설'로 남을 수 있는 무대다.

한국 올림픽 사상 3관왕은 2006년 토리노 대회 때 빅토르 안(안현수)과 진선유 두 명 뿐이다. 최민정이 1000m를 제패하면 12년 만의 3관왕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다.

심석희와 김아랑은 2관왕을 정조준한다. 2014 소치 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계주 금메달을 품에 안은 두 선수는 아직 이루지 못한 올림픽 개인전 우승을 위해 남은 힘을 쏟는다. 심석희는 소치 대회 이 종목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박승희와 판커신(중국)에게 밀려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앞선 6차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한국은 총 4차례 금메달을 가져왔다. 1994년과 1998년 릴레함메르 대회에서는 전이경이 시상대를 정복했고,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는 진선유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같은날 남자 대표팀은 5000m 계주 결승에 출격한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은 2006년 이후 계주 금메달이 없다.



“왕따 스캔들” USA투데이·BBC 등 한국 팀 추월 비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대표팀이 ‘따돌림 스캔들’이라는 지적과 함께 외신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USA투데이는 21일(한국 시간) “‘따돌림 스캔들’이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을 강타했다”며 “김보름,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건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노선영(29·폴링팀), 김보름(25·강원도청), 박지우(20·한국체대)로 이뤄진 대표팀은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3년3초76을 기록, 8개 팀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팀워크가 생명인 팀추월에서 선수들의 호흡을 찾아볼 수 없었다. 3명이 나란히 달리는 팀추월 경기는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을 두고 경쟁한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를 앞두고 노선영을 제외한 김보름, 박지우만 앞으로 치고 나갔다.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은 큰 격차로 뒤늦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후 김보름과 박지우가 인터뷰에서 노선영을 탓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저조한 경기력과 실종된 팀워크로 상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노선영이 홀로 울고 있는 장면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일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이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노선영이 이에 반박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대한빙상연맹의 행정 착오로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했던 노선영이 앞서 김보름과 관련해 별도 훈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둘 사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추측이 많다.

뉴욕포스트는 김보름, 박지우에 대해 “밤데용 코치가 울고 있는 노선영을 위로할 때, 한국 선수들의 어떤 케미스트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둘의 경기 후 방송 인터뷰 내용도 전했다.

아후스포츠는 “한국 스케이팅이 트랙 사이드에서 홀로 울고 있는 동료를 두고 떠났다”고 전했다.

또 영국 BBC는 “35명 이상이 한국 스케이팅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둘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동료를 못살게 굴었다”며 김보름의 후원사 ‘네파’가 이달 말로 끝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캐나다 매체 더 글로브 앤드 메일은 “한국 선수들의 배신이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장면이었다”고 했다.

뉴스스

강팀킬러 女컬링, 3위 러시아도 쳐냈다...예선 1위 확정

‘툼5’ 모두 제압...내일 예선 4위와 결승 진출 격돌



대한민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랭킹 3위인 러시아 출신 선수(OAR)들도 완벽하게 제압, 예선 1위를 확정했다.

21일 오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4인조 예선 8차전 러시아와 경기에서 6엔드 만에 11-2로 완승을 거뒀다.

박성현·고진영 등 태극골퍼 총출동

오늘 혼다LPGA 타이일랜드서 톰슨·쭈타누간과 장타 대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를 호령하는 태극양자 군단이 태국으로 집결했다.

22일(한국 시간) 태국 춘부리의 시암 컨트리클럽(파72·6576야드)에서 2018시즌 세 번째 대회 ‘혼다LPGA 타이일랜드’(총상금 160만 달러)가 열린다.

혼다 LPGA 타이일랜드에는 앞서 열린 두 대회와 달리 지난해 상급 상위 랭커와 스폰서 초청 선수 등 선배 박은 70명만 출전한다.

세계랭킹 1위 평산산(중국)을 비롯해 박성현(25·KEB하나은행), 유소연(28·메디힐), 렉시 톰슨(미국), 안나 노르드퀴스트(스웨덴), 진인지(24·KB금융그룹) 등 6위까지 총 출동한다. 랭킹 톱20 선수들 중 17명이 참가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 중국(10위), 스웨덴(5위), 미국(7위)을 차례로 무너뜨렸다.

3위 OAR마저 꺾으며 세계 톱5를 모두 꺾어 ‘자이언트 킬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OAR을 상대로 대표팀은 스킵 김은정(28)을 필두로 서드 김경애(24), 세컨드 김선영(25), 리드 김영미(27)가 나섰다. 김초희(22)가 뒤를 받쳤다.

한국은 1엔드를 선공으로 시작해 3엔드까지 스틸에 성공하며 러시아를 압도했다. 1점 스틸이 아닌 매 엔드 3점씩을 때내며 9-0으로 앞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4엔드 선공에서 1점을 내주긴 했지만 처음으로 후공을 잡은 5엔드에서 다시 2점을 보태 11-1까지 달아났다.

대량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OAR은 6엔드 1점에 그쳤다. 전의를 상실한 러시아는 한국 선수들에게 약수를 청하며 ‘뭇게임’(기권)을 선언했다.

한국은 이날 오후 8시5분 같은 장소에서 덴마크를 상대로 예선 최종전을 벌인다. 23일에는 예선 4위 팀과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뉴스스



을 차지한 양희영(29·PNS), 시즌 개막전 투어 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2연패에 성공한 브리타니 린치 캄(미국)과 함께 경기를 치른다.

LPGA 통산 6승의 김세영(25·미래에셋)을 비롯해 이미향(25·KB금융그룹), 허미정(29·대방건설) 등에게도 시즌 첫 대회다. 박성현과 율해의 선수상을 공동 수상한 유소연과 한국 선수 중 맏이인 지은희(32·한화)도 출사표를 던졌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이보미(30·한미골프), 김하늘(30·하이티진로)도 초청 선수로 나선다.

뉴스스



프로농구 서울 SK의 가드 김선형(29)이 지난해 10월 17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에서 오른 발목 부상을 당했다.

‘부상’ 서울SK 김선형 134일 만에 코트 복귀

프로농구 서울 SK의 국가대표 가드 김선형이 부상에서 134일 만에 돌아온다.

SK는 21일 “김선형이 오는 28일 잠실화성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인양 KGC인삼공사와의 6라운드 마지막 홈경기에서 복귀한다”고 전했다.

김선형은 이번 시즌 개막 2번째 경기였던 지난해 10월17일 울산 모비스전에서 오른 발목 외측 인대 파열과 발뒤꿈치 뼈 일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속공 레이아웃 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꺾여 발생한 부상이다. 김선형은 인대 접합술을 받고 그동안 재활에 매진했다.

완대 12주 진단을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다. 재활 기간이 길어져 134일 만에 코트에 돌아오는 것이다.

4강 직행을 노리고 있는 SK는 30승17패로 울산 현대모비스와 공동 3위다. 4강 직행을 위해서 최소 2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2위 전주 KCC(31승16패)와의 승차가 한 경기에 불과해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

김선형이 바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선보이기 어렵겠지만 복귀 자체가 큰 힘이 될 수 있다. 또 지난 13일 부산 KT전에서 다쳤던 김민수도 함께 돌아온다.

문경은 SK 감독은 “히체서야 당초 시즌 전에 준비했던 모든 전력이 갖춰지게 됐다. 김선형이 복귀한다고 해서 팀이 갑자기 강해지진 않겠지만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이 팀에 합류한다면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밤 데 용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코치 “경기 결과 놀랍지 않다”...SNS 글 삭제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팀 밤 데 용(네덜란드) 코치가 여자 팀 추월 경기 이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글을 삭제했다.

밤 데 용 코치는 여자팀 추월 경기 다음날인 20일 트위터에 “불행히도 놀랍지 않다. 나는 (선수들이) 7위 또는 8위를 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 트윗과 함께 밤 데 용 코치는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 직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 뒷모습이 적힌 사진을 덧붙였다. 이 사진 아래에는 “한국 선수들이 팀추월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노선영(29·폴링팀), 김보름(25·강원도청), 박지우(20·한국체대)로 이뤄진 대표팀은 지난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3년3초76을 기록, 8개 팀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대표팀의 경기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대표팀은 마지막 바퀴를 앞두고 노선영을 제외한 김보름 박지우만 앞으로 치고 나갔다.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은 큰 격차로 뒤늦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종 3번째 주자의 기록으로 성적을 매기는 팀 추월의 종목 특성상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경기 후 밤 데 용 코치는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경기장을 빠져나간 뒤 울고 있는 노선영을 홀로 위로했고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남기며 의문을 증폭시켰다.



경기를 지켜봤던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동료를 배려하지 않고 팀워크조차 없었다며 포탈을 비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빙상연맹은 20일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불화설을 해명했지만 상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밤 데 용 코치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해당 트윗을 삭제하자 일부에서는 코치진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출신이자 토리노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밤 데 용 코치는 지난해 4월 한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